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

2019년 7월 1일 | 팀장(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천 km ² 	인구 28만 명 (2018) 	정치체제 프랑스 해외령 	대외정책 - 
GDP 106.2억 달러 (2018) 	1인당GDP 37,977달러 (2018) 	통화단위 Comptoirs Français du Pacifique(XPF) 	환율(\$기준) 104.20 (2018) 

- 뉴칼레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쪽으로 1,500km, 뉴질랜드에서 북동쪽으로 1,700km 지점의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섬으로, 주민은 멜라네시아인(토착 원주민, 카낙족), 유럽인, 폴리네시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카톨릭(60%)과 개신교(30%)가 주를 이루고 있음.
- 1853년 프랑스 제2제정 당시 나폴레옹 3세 황제에 의하여 프랑스 영토로 편입되었고, 1956년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France d'outre-mer) 중 하나로 통합되었음. 현재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정부재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15%(약 1,200만 톤)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기준 세계 3위의 니켈 생산국임. 산업구조가 니켈 생산 및 수출에 편중되어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상태로 추정됨.
- 연중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깨끗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여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프랑스 해외영토)

주요협정 (프랑스 해외영토)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 출	85,475	91,066	141,398	석유제품, 건설기계, 자동차
수 입	240,320	287,638	342,480	니켈광 및 니켈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9.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건, 172,51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3.4	3.6	3.0	2.7	2.4
소비자물가상승률	0.2	0.6	0.6	1.4	1.3
재정수지/GDP	n/a	n/a	n/a	n/a	n/a

자료: IMF, EU

니켈 국제가격 변동폭 확대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

- 니켈광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뉴칼레도니아 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니켈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015년 3.6%에서 2016년 3.0%, 2017년 2.7%로 계속 하락하였음. 최근 니켈 국제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니켈광 수출의 수익성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2018년에도 뉴칼레도니아 경제는 2.4%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최근 3년 간 니켈 국제가격 추이



자료: LME(런던금속거래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1%대로 상승 추정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해외영토(France d'outre-mer)로서 별도의 중앙은행이 없이 프랑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정책금리 결정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에 의해 좌우됨.
- 2016년까지 0%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에는 국제유가의 반등 추세로 인한 유류 수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 이어 1%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 재정은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원조에 크게 의존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재정은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재정수지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대외거래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추정

- 경제·산업구조가 니켈광 및 니켈 제품의 수출에 편중되어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경상수지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도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

- 뉴칼레도니아 정부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에 매년 약 140억 달러의 재정지원(financial transfer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뉴칼레도니아 GDP(989.4억 달러)의 약 13% 수준임. 따라서 외채상환 역시 프랑스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다만, 2020년 및 2022년 국민투표 결과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프랑스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외채상환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됨.
※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의 외환보유액 관련 세부 통계자료는 없음.

구조적취약성

니켈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뉴칼레도니아는 GDP의 10%,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니켈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니켈의 국제가격 및 국제수요 변동이 경제를 좌우하고 있음.
-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15%(약 1,200만 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지질조사국(USGS)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세계 3위의 니켈 생산국임.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 지속

- 니켈 생산 외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주로 소기업에 의해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가 생산되고 있으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가공품을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하는 정도에 그침.
- 니켈광 및 니켈 제품 외의 다른 수출품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상품-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등의 경기변동에 따라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음.
※ 2017년 상품수출액의 국가별 비중(EIU 추정) : 중국 39.9%, 한국 19.8%, 대만 9.5%, 일본 8.5%
-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프랑스 본국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건, 교육, 공무원 급여 지급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성장잠재력

관광산업의 높은 잠재력

- 연평균 기온 20~28도의 온화한 열대성 기후로 인해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를 보유하여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뉴칼레도니아 국토의 6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됨.
- 관광객은 유럽인과 일본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한국인 관광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수년 간 유럽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다소 침체되었으나, 경기가 회복되면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객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호텔, 해양 스포츠 등의 관광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정책성과

신성장 동력 개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은 성공 전망이 불투명

- 자치정부는 경제의 신성장 동력 개발,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한 생필품 고물가의 개선 등을 위해 전력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총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니켈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는 정책의 성공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임.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산업은 프랑스의 대규모 광산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음.

정치동향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점차 세력을 얻고 있어 독립 가능성 고조

- 1998년 프랑스 정부와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 간에 체결된 누메아 협정에 따라 2018년 11월 독립 관련 국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56.4%)가 찬성(43.6%)을 앞질러 프랑스 해외영토로 잔류하였음.
- 누메아 조약은 동국을 프랑스의 해외영토로 명시하고 정부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며 2014~19년사이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독립 지지파는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당초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은 데 고무되어 2020년 및 2022년에 다시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는 등 과거에 비해 독립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금년 5월 12일의 의회 선거에서 총 54석 중 독립 반대파가 28석(1석 감소), 독립 찬성파가 26석(1석 증가)을 차지하여 양측이 거의 대등해진 상황임.

사회동향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자리 부족, 독립 추진 관련 시위 발생 가능성 상시 잠재

-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서국(島嶼國)의 특성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 환경오염 증가, 경제규모 협소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 특히 교육과 고용 기회가 백인계 주민에 비해 부족한 토착 원주민인 카낙인 주민과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일으킴.
- 아울러 독립을 지지하는 계층과 반대하는 계층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국제관계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서 국제관계도 프랑스 본국에 종속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 외교·국방·사법 권한이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있어 국제관계도 프랑스 본국의 국제관계에 종속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뉴칼레도니아의 외채상환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이므로 OECD 등은 별도의 신용등급 부여 없음

-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 공화국의 해외영토로, OECD와 국제신용평가3사는 뉴칼레도니아를 별도의 독립국으로 간주하지 않아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뉴칼레도니아는 세계 3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최근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국제가격 약세로 니켈 수출액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겪고 있으며, 정부재정에서 프랑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2018년 11월 독립 관련 국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56.4%)가 찬성(43.6%)을 앞질러 프랑스 해외영토로 잔류하였으나, 2019년 5월 12일의 의회 선거에서는 총 54석 중 독립 반대파가 28석, 독립 찬성파가 26석을 차지하여 양측이 거의 대등해진 상황임.
- 현재까지는 프랑스 해외영토라는 지위를 감안하여 외채 및 대외결제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2020년 및 2022년 국민투표 결과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추진될 경우 프랑스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외채상환능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